

“반려견, 동물 아닌 가족처럼”

정읍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캠페인 이달까지 홍보물·배변 봉투 배부

정읍시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읍시는 반려견과 산책하기 좋은 계절 가을철을 맞아 최근 천변로 공영주차장과 샘고을 시장 일원에서 ‘유실·유기견 방지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이학수 시장과 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동물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반려견도 가족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와 동물보호 캠페인을 함께 전개했다.

또 현장을 찾은 반려인과 예비반려인을 대상으로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도 진행했다.

특히 이학수 시장은 캠페인 전면에 나서 현장의 시민들에게 시가 운영 중인 동물보호소를 집중적으로 홍보했고 입양 절차와 입양비 지원, 운영 시



지난 5일 ‘유실·유기견 방지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함께한 이학수(오른쪽 두번째) 정읍시장이 반려견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간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지속되며 시는 입양 홍보 내용을 담은 홍보물과 배변 봉투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

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또한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생명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고인돌군, 고대 한반도문명의 발상지”

고인돌 문화 정체성 탐구 세미나…“인류 문명 시초 중 하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의 고인돌군이 인류 문명의 시초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창의 고인돌이 세계 6대 문명에 해당하는 ‘문명의 요람’으로서 고대 한반도문명의 발상지라는 주장은 지난 8일 고창에서 ‘무덤에서 삶의 공간’이란 주제로 열린 ‘고창 고인돌 문화의 정체성 탐구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조강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문명의 요람과 고창 고인돌 유적의 인류사적 가치’라는 내용으로 발제에 나서 “세계 최고의 거석 문명을 일군 고대 한반도문명이 세계 6대 문명으로서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논설위원은 “구전과 신화, 역사체계, 성문법, 문자, 계획도시 등 BC 3000년 전후 ‘문명의 요람’을 가리던 여러 기준 중 청동기 문화의 유무가 주된 기준으로 인식돼 왔다”면서도 “최근에는 석기시대에 머물렀던 아메리카문명까지 5대 문명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이어진 문명 중 고인돌로 대표되는 거석문명의 종주국으로서 세계 거석 유적의 50% 이상, 고인돌 유적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나아가 문명의 판단 여부를 가리는 여러 기준을 역시 충족해 있는 상태임을 논리적으로 풀이했다.

또 ‘문명의 요람’으로서 기준에 충족하는 큰 규모의 계획도시 역시 고창지역을 위시해 고대 한반도 전역에 대규모로 조성된 고인돌 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는 그럼에도 고대 한반도문명과 고창의 고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창 고인돌 유적.

돌이 올바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한반도의 고인돌은 BC 1000년께 청동기시대 부족장의 무덤이란 잘못된 가설이 보편화된 배경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국내 고고학계의 풀어야 할 과제로 제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등과학원 박창범 교수의 ‘선사시대 인류의 천문지식(성형 등)과 고창 고인돌 유적에 나타난 별자리 과학’, 서울대 신범순 명예교수의 ‘암각화, 거석분야, 존재생명서관 연구’, 고창문화연구소 이병렬 사무국장의 ‘고인돌 축조에 반영된 선사시대 고창인의 천문학’, 우리역사연구소 정병우 소장의 ‘자연사로 살펴본 고창 고인돌 유적의 축조연대 및 선사시대 고창인의 철학과 예술’, 고인돌문화연구소 조전환 사무국장의 ‘한옥 건축방식에 스며있는 고인돌 축조법’, 고인돌보존회 박수영 사무국장의 ‘고창 고인돌 유적의 보존 실태 및 미래 방향’ 등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활동 편하고 예쁜 한복 함께 입어요



남원시의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을 통해 한복을 무상대여 받은 청소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유아·아동·청소년 단체 무상 대여... 14일까지 접수

남원시가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과 한복문화를 연계한 ‘2022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일상에 꽃이 피다’를 진행한다.

이는 일상 속에 한복을 입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졸업사진 촬영·단체 특별 행사, 한복 나들이 등 한복이 필요한 지역 유아·아동 및 청소년 단체에 한복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남원시에 소재한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 단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인원은 20명 이내이며 20명 이내 분할도 가능하다.

오는 14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서 제출시간을 기준으로 선착순 20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식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2년 가을,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남원에서 한복과 함께 하는 특별한 일상이 필요한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남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복을 입고 경험하는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남원의 한복 문화가 더욱 확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농업면세유 인상분 50% 지원사업 연장

고창군, 11월 4일까지

고창군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11월4일까지 연장한다.

오는 23일까지인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1차 신청 기간 동안 바쁜 영농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청지 못한 농업인이 없도록 빠짐없는 지원을 위한 조치다.

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가격 인상분 중 50%를 지원한다. 기준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5월 상승한 면세유 가격 차액(경유 644원, 휘발유 552원)이다. 단 배정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면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과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초·중·고 ‘찾아가는 학교급식 컨설팅’

전북교육청, 식단·예산관리 등

전북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급식 종합 컨설팅’을 운영한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참여형 급식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교급식을 컨설팅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종합컨설팅단은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급식운영·식단작성·레시피개발·예산관리·NEIS 사용 급식운영 자문과 급식위생·HACCP

관리 등 위생안전분야, 급식시설과 설비, 영양·식생활교육, 전문가 자문, 장학 및 컨설팅의 유형으로 구성·운영된다.

교육급식 자문단은 학계 및 유관기관 등 급식운영 관련 전문 인력풀로 구성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급식운영 및 학생교육활동 관련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멘토링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희망학교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상반기 신청학교 11개교의 2배를 넘는 24개교가 컨설팅을 희망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침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